

## 월간 안전기술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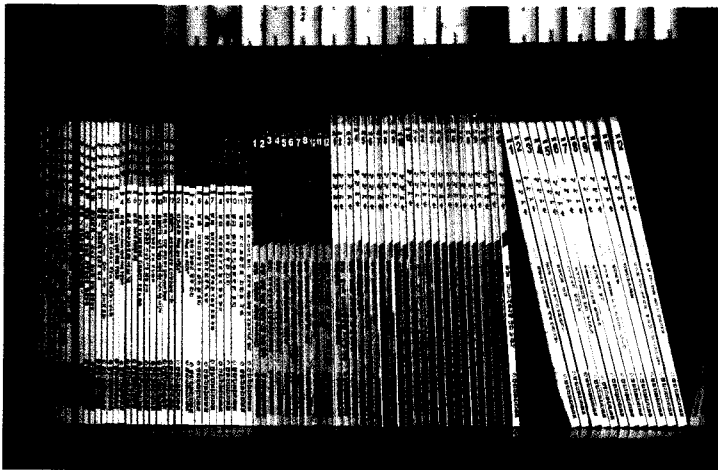
### 안전협회 정기간행물의 이름표

간행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호일 것이다. 사람도 이름이 좋으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제호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시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안전협회)에서는 안전 신문사를 출판 대행으로 "산업안전"이라는 제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해관계로 "산업안전"의 제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제호를 달아야만 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월간 "안전기술"의 제호는 현재 안전협회 서울지회에 근무하고 있는 이호성 차장이 지었다. 안전 기술관련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본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무재해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월간 안전기술"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이 하였다.

한글과컴퓨터사에서 제공하는 "양재돌기"체를 로고 체로 친근감을 주었고 획이 힘이 있다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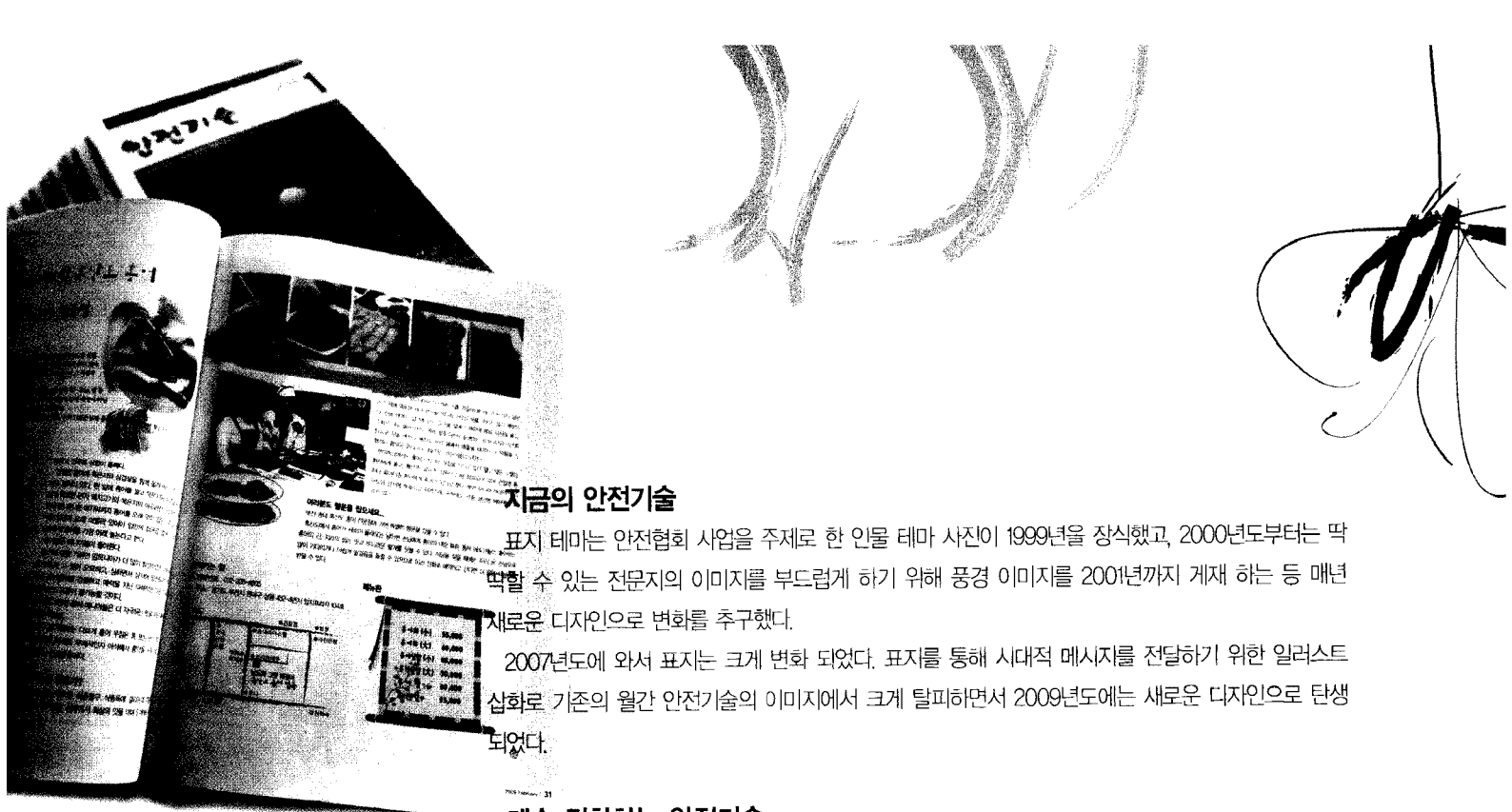
그러나 양재돌기체는 표지 주제와 조화를 이루기에 한계가 있어, 2007년 안전기술의 4×6배판에서 국배판으로 판형을 변경하면서 제호 C체도 지금의 현대적 감각으로 변화되었다.



### 월간 안전기술의 비상

1999년 3월 월간 안전기술은 안협 제15호로 시작했다. 모태는 재해사례만을 구성한 "재해사례연구", "안전기술"이 제호가 아니라 제15호가 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창간호는 국내 안전보건 방향을 전하는 정보 부분을 비롯해 선진 안전보건자료, KOSHA Code 등 특집, 연재, 정보로 나뉘어 12개 코너의 68페이지로 시작했다. 그러다 2개월 후 5월호부터는 문학과 일반 상식이 추가 구성되면서 13개 코너 84쪽으로 확대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7월호에서 부터는 현장 탐방기사가 실리면서 100쪽의 안전기술이 탄생되었다.



### 지금의 안전기술

표지 테마는 안전협회 사업을 주제로 한 인물 테마 사진이 1999년을 장식했고, 2000년도부터는 딱딱할 수 있는 전문지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풍경 이미지를 2001년까지 게재 하는 등 매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를 추구했다.

2007년도에 와서 표지는 크게 변화 되었다. 표지를 통해 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러스트 삽화로 기존의 월간 안전기술의 이미지에서 크게 탈피하면서 2009년도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 되었다.

### 계속 진화하는 안전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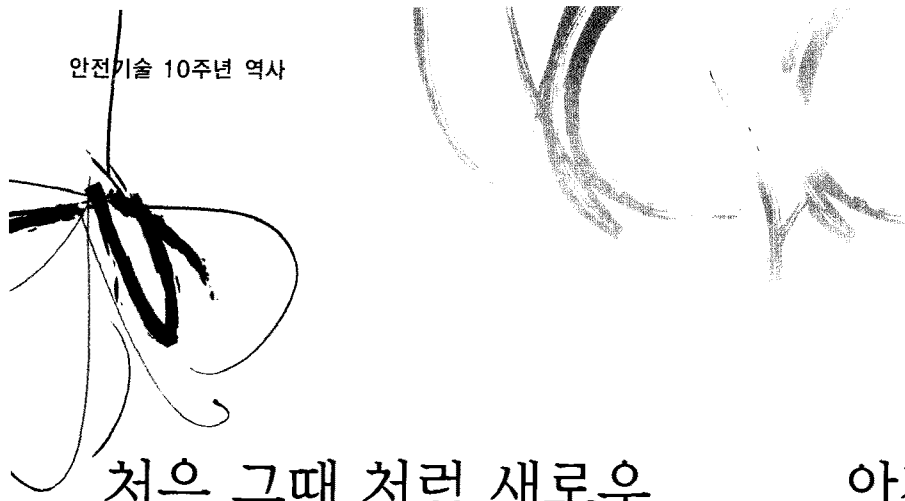
월 평균 13,000부 발행으로 시작한 "안전기술"은 지난 10년 동안 총 2백 만부 넘게 발행되었다. 안전기술은 국내 도서지방까지 전달되면서 그 명성을 높였고, 활발한 해외 교류로 현재는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 등 해외로까지 전달되고 있다.

지금은 월 평균 24,000부를 발행하는 명실상부 국내 베스트셀러로서의 자리는 물론 안전전문지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 정기간행물 중 상위 그룹에 자리 하고 있다.

월간 안전기술이 오늘 최고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지난 10년간 진솔한 이야기와 안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의 애환을 본지를 통해 이야기한 1999년 전 이상룡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수 많은 인사들이 있었고, 당시의 안전관리 사례를 스스럼없이 함께 공유한 1999년 7월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2000년 11월 대우건설 영등포 아파트현장 등 여러 기업들이 함께 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월간 안전기술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안전전문지로 페이퍼 위주의 간행물에서 전자 간행물까지 발행하는 등 입체적인 간행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고 시대 변화에 편승된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할 것이다. ☺





# 처음 그때 처럼 새로운 미래의 출발선에 서서...



▲ 최 종 덕 기자

10주년이라니! 나 자신도 놀랍지만 주변에서도 그동안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주니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월이 지난 흔적 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 있어 그 애뜻함이 크다 했던가? 안전기술을 담당한지 10년, 내게도 그 애뜻함이 없으리 없다. 안전 기술 정보의 특화를 살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외자료를 발굴하는 일, 예비 안전기술사를 위한 자료를 찾는 일, 보다 업그레이드된 안전기술을 만

들기 위한 부담에 벤치마킹은 생활이 되었고 기사를 쓰고 월간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때이기에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최고의 정보수집 방법이어서 국회도서관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서울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아야만 했던 일은 오늘의 10주년이 될 수 있었던 열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IMF가 끝날 무렵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이 계약직으로 신분이 보장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안전기술 취재를 위해 찾은 우리는 달갑지 않아 손님 취급 받기를 수십번, 원고 마감은 다가오는데 계획되었던 취재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어 애간장을 태웠던 순간들은 오늘 10주년이 되어 추억으로 떠오르듯 모든 것이 사람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월간 안전기술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10년 전 처음 안전기술을 만났을 때 설레임도 신입사원의 패기도 의욕도 열정도 다시 새롭게 느껴진다. 처음처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떨림은 없지만, 안전기술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알기에 다가올 미래가 기대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안전기술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는 모르나 오늘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지를 넘어 세계 안전전문지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 동안 월간 안전기술에 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듯한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독자분과 함께 하는 안전기술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겠습니다.

# 안전정보 대표 월간지로 그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 임 재 근 기자

지난 2005년 10월, 회원홍보팀으로 발령을 받고 안전기술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지금의 최종덕 팀장님이 매달 전해 주시던 안전기술을 받고는 기술적인 내용에 도움 될 만한 것이 있나 한 번 훑어보는 정도였다. 막상 회원홍보팀으로 발령받고 안전기술을 직접 만들게 되었을 때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두가 그렇지만 나에게도 첫 만

남, 첫 경험이 있다.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기분으로 취재를 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2005년 9월호를 위해 8월 중순 늦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아침, 대구 달성공업단지에 위치한 동아제약(주)을 방문하여 20여 년 동안 안전의 길을 걸어온 구지원과장님을 만났다. 40여 분 동안의 인터뷰를 마치고 앞뜰 잔디밭에서 사진 촬영도 무사히 마친 후 과장님으로부터 건네 받은 시원한 청량음료가 어찌나 시원하고 달콤했던지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 내렸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금은 익숙해 졌지만 당시는 대부분 기업 관계자분들이 나보다 사회 선배로 여러 가지 질문과 더불어 의도했던 내용을 유도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다. 취재를 하다보면 전국방방곡곡 안다니는 곳이 없어 세상 구경 많이 하겠다며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지방 출장 갈 때면 창 밖 풍경을 보며 새로운 세상구경에 마냥 즐거웠는데 지금은 즐기거나 기사 정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찌면 이런 모습이 이전 "일에 더 열심히 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덜 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원래 산업공학을 전공한 일명 '공돌이'인 내가 벌써 42권의 안전기술 발행 작업에 참여했다. 아직도 기사를 쓰는 작업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쓴 글에 도움을 받거나 약간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으로 글을 쓰는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10살이 된 안전기술, 편집팀의 한 사람으로 이 책을 받아 보는 독자님들을 위해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그리도 사업장에서 안전과 연을 맺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